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Ⅱ

외채, IMF와 세계은행

편집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외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대한 대응

세계각국은 왜 그리 빛이 많은걸까? 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일까?

무엇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빛에 허덕일까?

IMF와 세계은행은 또 뭐가? 이런 문제를 이 장에서 다룬다.

국제적인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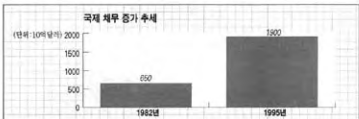
지난 십수년 동안, 정부 기업 개인이 전 빛은 엄청나게 늘었다. 1995년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진 빚은 1조 9천억달러를 넘는다. 이것은 1980년의 6500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빚 부담은 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빛이 많은 채무국으로 미국의 빚은 1994년에 4조 9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왜 빛이 쌓이나

미국: 세계 제일의 빚쟁이 나라

한때 미국은 세계 제일의 채권국이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엄청



난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세계 제일의 채무국이다. 미국이 빚쟁이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 미국 정부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왔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빚이 계속 늘고 있다. 1980년대 미국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늘렸고, 이것이 재정적자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 또한 미국은 여러 핵심 분야에서 경쟁국들에게 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품들이 미국에 몰려들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미국은 무역적자를 견디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도 미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다른 이유가 됐다.

●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본부를 두게 되면서 무역적자가 더 악화되었다. 다시 말해 외국에 자리잡은 미국 외 초국적기업들이 되레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게 되어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빚과 개발도상국

1960년대와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서방의 민간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렸다. 당시는 금리, 즉 이자율이 낮을 때였다.

빌린 돈은 새로운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투자되었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부패한 집권층이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 즉 차관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패한 집권층은 착복한 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다시 서방 은행에 예금했다. 이것이 "자본탈출"이라 부르는 것이다. 또한 차관은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군사비로 지출되어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1979년 이후 금리가 올랐다. 이것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1979년 기름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석유를 수입해서 쓰던 나라들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기름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

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기침체는 돈의 흐름을 막히게 만들어 금리가 올랐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난한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

가난한 나라들의 엄청난 빚과 이들 나라가 빚 갚을 능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부유한 나라들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돈을 빌린 나라, 즉 채무국은 미국 달러로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자국 통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가치가 약화된다.

- 빌린 돈을 갚는 재원은 상품수출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원료만을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불행하게도 원료 가격은 계속 하락해왔고, 이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더 적은 돈을 벌게 된다.

- 가난한 나라들이 기계류 같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공작기계같은 생산품의 가격은 점점 올라 가난한 나라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다.

-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리가 덩달아 올랐다. 이것은 서방의 민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은 원금

은커녕 이자 값기에도 급급하다.

1982년 멕시코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부채위기가 악화된 적이 있다. 1994년 멕시코가 또다시 외채지불유예를 선언하고자 했을 때, 이에 놀란 미국이 IMF의 협조를 받아 부랴부랴 구제금융을 멕시코에 제공한 적도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1998년에 금융위기에 빠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지불유예선언)을 선언했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50개가 넘는 나라에 채무문제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국제적인 핵심금융기관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1944년 UN 통화재무회의에서 그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렸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회의'라고도 불린다.

이 회의는 2차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의 룰을 만들었다. 이러한 룰을 실행하기 위해서 3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IMF, 국제재건개발은행(이후 세계은행으로 불림), GATT(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IMF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통화 문제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 국제무역의 성장과 확대를 촉진한다.
- 각국 통화를 안정시킨다.
- 채무국의 무역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IMF는 (3년까지의) 단기차관을 제공하여 채무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과 IMF는 미국 달러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을 세웠다. IMF는 각국의 환율을 감시하며, 각국의 통화 가치가 공식환율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돕고 있다.

1995년 현재, IMF는 176개 회원국을 갖고 있다. 회원국은 회비를 낸다. 회비를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런 제도를 "달러 1표"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많은 돈을 내면 투표권이 많아지고, 당연히 발언권이 세지며, IMF에 대한 통제력도 커진다. IMF에 가장 많은 분담금(회비)을 내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이들 나라가 전체 투표권의 43.74%를 갖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빈국인 기네비사우 같은 나라는 0.03%, 파라과이는 0.08%, 가나는 0.24%의 투표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처음에는 국제재건개발은행(IBRD)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원래 목

적은 개발을 위한 장기채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원래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의 재건과 복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늘리게 된다.

1956년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IFC)를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1960년 미국은 별도의 기구로 국제개발협회(IDA)의 결성을 주도했다. IDA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했다. IFC와 IDA, 그리고 IBRD가 통합하여 세계은행이 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176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은 회비를 낸다.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나라들은 미국(17.9%), 일본(7.43%), 독일(5.74%), 프랑스(5.5%), 영국(5.5%)이다. 이들 나라들은 집행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집행이사는 세계은행의 정책을 결정하고 차관을 승인한다. IMF 회원국이어야 세계은행 회원국이 될 수 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개발

IMF와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들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들 기관의 목적은 2차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선진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자, 이들 기관은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돌렸다. IMF의 역할은 각국이 무

역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문제를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기관의 역할이 매우 비슷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한국도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협의하면서 IMF의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초반에 채무위기의 징후가 보이자, IMF와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안정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이 처방전을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SAPS)이라 부른다.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국들이 서방 은행들에게 단기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했다. 가난한 나라들은 엄청난 빚을 갚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기관이 부과한 조치들을 피할 방도가 없었다.

구조조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 농업보조금같은 정부보조금 삭감
- 공공부문 인력축소 같은 정부주도 서비스 폐지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따위의 정부지출 삭감

-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상업화
- 통화가치 평가절하 및 외환규제 철폐
- 국민요구보다는 수출을 위한 생산 증진
- 무역장벽 및 산업보호 장치 제거

구조조정프로그램은 빈곤을 늘린다

가난한 나라의 빈곤을 줄이는 대신,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빈곤을 늘렸다. 프로그램은 다음 문제를 낳았다.

- **고물가:** 정부 보조금의 삭감으로 많은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1986년 잠비아의 경우, 식품가격이 120% 올랐다.
- **임금하락:** 멕시코의 경우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임금이 41% 하락했다.
- **채무증가:** 1985년 850억 달러였던 멕시코의 외채는 1992년 1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3년 아프리카 대륙의 총외채는 국내총생산의 110%에 달했다. 이는 1980년의 28%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이다. 막대한 외채는 해당 나라의 경제력 강화를 방해하며, 이 때문에 빚물림의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된다.
- **의료보건의 악화:** 식품보조금의 삭감은 영양실조와 질병을 악화시켰다. 브라질의 경우 영아사망률이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동안 20% 늘었다.
- **경제성장의 하락:** IMF 조사는 15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경제성장률이 떨

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적인 반익반부익부의 심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가난한 나라의 부를 부유한 나라로 옮겨 버린다. 1984년과 1990년 사이에 가난한 나라들이 서방 은행에 지불한 돈이 1780억 달러를 넘는다. 이것은 "남쪽 세계(the South)의 탈 자본주의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 **환경파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가난한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수출가능한 자원을 마구 파헤쳐야 하며, 이런 조치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이미 실패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데 실패했으며, 대신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뽑아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과는 적극적인 국가였다. 한국이나 대만에서 잘 드러나듯이,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부문은 경제발전의 엔진이었다. 국가의 지원은 외국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대단히 중요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 받는 나라의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 대신 이들 나라의 경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정치적 역할

IMF와 세계은행은 단지 자신들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MF와 세계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을 각국 정부에 행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같은 부패한 우익정부를 지원해왔으며,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에 도전해왔다.

1971년 칠레에 좌익정권이 들어섰을 때, 세계은행은 칠레에 대한 모든 차관 제공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칠레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1973년 피노체트가 좌익정권을 뒤엎은 우익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차관 제공을 재



개했다. 피노체트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1979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직후, 세계은행은 니카라과에 대한 차관 제공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산디니스타 정권의 경제발전계획은 좌초하게 된다.

채무위기와 싸워라

채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지금까지 잘 된 적이 없다. 많은 공식적인 전략들은 단기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채무상환 기간의 재조정, 부채의 일부 탕감 등이 공식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체 부채 가운데 이런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부채는 얼마되지 않는다.

브랜디 계획

1989년 미국 재무성의 니콜라스 브랜디는 부채의 일부 탕감과 부채의 외국인 투자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브랜디의 제안을 받아들인 은행은 거의 없었고, 제안은 폐기되었다.

빛으로부터의 자유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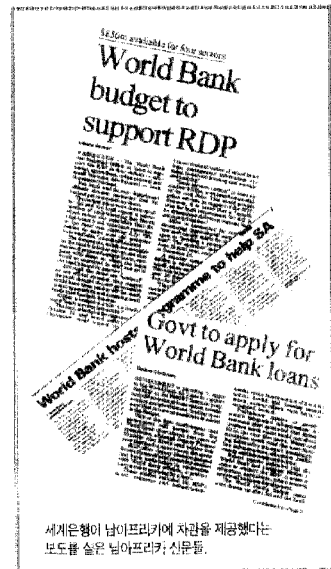
1987년과 1989년 사이에 남미의 노동운동가들은 서로 만나 빛 문제를 다루었다. 빛으로부터의 자유연합은 1987년 필리핀에서 결성되었다. 자유연합은 부채를 비난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반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동맹운동

1994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서 빛에 시달리고 있는 25개 나라들은 외채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외채 탕감을 어떻게 이루어 낼 지는 밝히지 않았다.

50년이면 충분하다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은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를 탕감하라고 요구했다. 『사회혁명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보고서에서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이 가난한 채무국들을



구제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정부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5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불린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운동이 시작된 1994년이 IMF와 세계은행이 만들어 진지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기독교원조재단 권고문

런던에 본부를 둔 기독교원조재단은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을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내놓았다.

- 국제금융시스템을 다시 검토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이 참여적인 과정이 되도록 만든다.
- 국제적인 채무부담을 검토한다.

● 세계은행과 IMF를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기관으로 만든다.

● 세계의 은행들은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IMF의 경제개발 자금 대출 업무를 없애야 한다.

● IMF와 세계은행은 국제연합(UN)에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권고문이 1995년 G7 정상회담에 제출되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G7 국가들은 이러한 제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생각해 볼 거리들

노동운동은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개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MF와 세계은행에 개입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은 무엇일까? 세계은행과 IMF를 민주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장에서 배운 것

- 국제적으로 부채는 늘고 있으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빚에 쪼들리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며, 점점 더 세계 경제에 종속되고 있다.
- IMF와 세계은행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특히 미국이 IMF와 세계은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한국경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